

이기는 삶

과유불급(過猶不及)

조선 시대에 우삼돌이라는 도공이 있었다. 우삼돌은 왕실에서 쓰는 도자기를 만드는 분원에서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익힌 덕분에 설백자기라는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었다. 설백자기를 왕실에 바치니 임금도 크게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도자기로다! 이 도자기를 만든 자에게 큰 상을 내려라!” 우삼돌의 스승은 매우 기뻐하며 그에게 명옥이라는 새 이름도 지어 주었다.

우명옥의 도자기가 유명해지자 주변에 나쁜 친구들이 찾아와 꼬이기 시작했다. “왜 항상 그렇게 일만 하는가? 이제 돈도 많이 벌었으니 편하고 즐겁게 보내야 하지 않겠나. 우리는 내일 뱃살이 갈 건데, 자네도 같이 가지 않겠나?” 난생 처음 뱃살이를 간 명옥은 맛있는 음식과 향기로운 술,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들에게 푹 빠졌다. 그 뒤로 명옥은 일은 멀리하고 기생집을 드나들며 놀았다.

우명옥이 주색(酒色)에 빠져 정신없이 놀다보니 어느새 돈이 떨어져 버렸다. 그러자 친구들은 우명옥을 이용해서 돈을 벌 계획을 꾸렸다.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가서 도자기를 만들어 팔아 보세.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명옥은 돈을 벌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배를 탔다. 그런데 폭풍우가 몰아쳐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명옥만 겨우 살아남게 되었다. 명옥은 결심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몸이다.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열심히 일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릇을 만들겠다.”

분원으로 돌아온 명옥은 매일매일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열심히 그릇을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그만 술잔을 하나 완성했다. 겉으로 보기에 평범했지만 술이 잔의 7할까지 차면 술잔 아래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신기한 술잔이었다. 우명옥은 이 술잔에 ‘남침을 경계하는 잔’이라는 뜻으로 ‘계영배(戒盈杯)’라는 이름을 붙였다. 계영배에는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

라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지나친 것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으로 논어의 선진편(先進篇)에 나오는 말로,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사(師:子張자의 이름)와 상(商:子夏자의 이름)은 어느 쪽이 어질니까?” 하고 묻자, 공자는 “사는 지나치고 상은 미치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럼 사가 낫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자공이 재차 묻자, 공자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말을 많이 하다보면 실수를 하게 된다.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다보면 사실을 부풀리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어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 또한 너무 무리를 하면 몸이 상하여 병이 나기도 한다. 무엇이든지 적당히 해야 한다. 말을 하더라도 너무 큰 목소리로 말을 하면 소음(騒音)이 되고 행동이 지나치면 광란(狂亂)이 된다. 자신은 별 의식 없이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피해가 된다면 목소리도 줄일 줄 알아야 하고 지나친 행동도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예의이다. 모름지기 중용(中庸)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이라 하겠다.*



지나친 행동을 자제할 줄 알고 중용의 길을 가야 참된 수도자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The Fruit of Life is just a Good Heart! 생명과일은 곧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생명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다.
▶ God is the Spirit of life. His Heart is the Good Heart.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피가 썩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때의 피는 깨끗하고 맑아집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사람의 몸의 세포들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게 됩니다.

▶ When man has God's Heart, his blood cannot decay at all. His blood, rather, becomes clean and pure. What is more, all the cells of his body grow sound and healthy.

그러므로 만약 사람의 피가 100퍼센트 맑아진다면 사람은 결코 죽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때의 몸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 Therefore, if his blood is 100 percent pure, a man cannot die, ever. He is, as it were, God. So, the righteous man lives eternally.

영생의 힘은 생명 과일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생명과일을 먹은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 The power of eternal life lies in the Fruit of Life. As the Bible has it, anyone who eats the Fruit of Life will live forever(Genesis 3:22).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양심)과 생명과일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므로 생명과일은 영적과일을 상징하고 영적과일은 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 Therefore, the Good Heart and the Fruit of Life are the same thing. As the Bible is a spiritual book, the Fruit of Life symbolizes a spiritual fruit, and spiritual fruit indicates a spirit.

마찬가지로 생명과일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생명과일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생명과일입니다.

▶ Likewise, the Fruit of Life and a Good Heart are one. The Fruit of Life is just a Good Heart, and a Good Heart is the very Fruit of Life.*

by Alice

1면: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비하인드 스토리

87년 6월 경남 진주에서 전국은 물론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

“서울과 전국 주요도시에서 6월 10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후 나흘간 계속되던 명동성당 농성이 14일 밤 해산되면서 15일부터 서울의 시위는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이때 경남 진주에서 전국은 물론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발생한다. 6·10대회는 마산을 경남의 거점으로 삼아 연합시위로 치렀지만, 이후 진주에서 독자적인 시위를 벌이던 시민과 대학생들이 15일 1만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시위를 벌여 시내 거리를 완전 장악해버렸다. -중략- 17일 기어올라 일터 터졌다. 시위대가 경전선 철도와 남해고속도로를 점거하고 LPG 운반트럭 2대를 탈취해 경찰과 대치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지역도시의 투쟁은 18일자 전국 주요 언론은 물론이고 워싱턴포스트와 타임 등 외신에도 대서특필된다. WP는 ‘S. Korea Protests Grow In Provincial Cities(지방도시 시위 증폭)’라는 제목을 뽑았고, 조선일보 1면 머리는 ‘남해고속도 3시간 장악’, 사회면 머리는 ‘지방시위 갈수록 격렬’이었다.”

미디어오늘 “서울만 대한민국이 아니다, 2015-12-06 기사 인용



국립경상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있는 민주광장에서 필자가 비폭력 평화시위를 호소함 87년 6월 민주항쟁이 끝난 직후 분수대로 바뀌었다가 3년 전 복원된 민주광장 / 사진출처: 단디뉴스

비폭력 평화시위를 제의하다

1987년 6월 12일 오후 3시부터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중앙도서관 앞 민주광장에서 총학생회 주최로 전경의 과잉진압에 대한 규탄집회를 가졌다. 그날도 중앙도서관에서 책만 읽던 박기자가 밖으로 나올 때에는 이미 पर्가 미가 지고 가로등의 아련한 불빛이 수천 명이 운집한 민주광장을 밝히고 있었다. 마침 그때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사연인즉 어찌 대학정문 앞을 가로막은 전경들이 시위하는 학우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대학 교내까지 난입하여 강의실로 피신한 여학생을 곤봉으로 무자비하게 때렸는데, 그 여학생이 병원으로 실려 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총학생회의 간부들은 병원에 실려 갈 정도로 여학생을 구타한 전경에 대한 성토(聲討)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지만, 박 기자는 그것보다 무

장한 전경들의 교내 진입 자체를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였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민주광장 중심을 곧바로 가로질러 발언권을 달라고 말한 뒤,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고 즉석으로 연설했다.

“대학교는 진리를 수호하는 학문의 전당으로써 성역과 같은 곳이다. 곤봉으로 무장한 채 군함발로 대학교를 짓밟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창작과 비평』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저 독일의 히틀러도 대학교만큼은 진리와 자유를 추구하는 성역으로 인정하여 대학교에 전차나 병력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떻게 일개 경찰서장이 도지사급의 대학총장의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전경을 대학교 내부로 투입한 것은 위계질서도 지키지 않은 것임으로 자격도 없다. 다시는 무장한 병력이 대학교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의 단결된 힘으로 보여줘야 된다. 학문의 상아탑인 대학교를 지키는 것은 우리 학생들만의 일이 아니다. 이제 대학총장을 위시로 단과별 대학교 수 모두 앞장서서 경찰서장의 사과를 받아내야만 한다. 그리고 데모만 하는 학생들이 정계에 진출하여 민주주의를 구현할 권력을 쟁취한 적이 있느냐? 맨

대학교가 지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새로운 지식을 접하다

특히 히틀러도 대학교만큼은 지성(知性)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군화발로 짓밟을 수 없는 성역(聖域)으로 여겼다는 대목에서, 대학생들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총학생회 지도부는 그날 밤 즉시 총장실을 점거하여 총장명의로 전경의 교내 무단 진입에 대한 진주경찰서장의 사과문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다음날 13일에는 경상대학언론이 관제 언론에서 민주언론으로 이양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철야농성을 하던 학생들이 요구한 편지 자율권 보장과 교수 편집국장 제도 철폐를 학교 측에서

간디 비폭력 저항운동 염두에 둔 87년 6월 평화시위, 학생·시민 호응 이끌어내

수용한 것이다. 이는 보름 후에 있는 6·29 선언에 ‘자유언론의 창달’과 ‘교육 자치 실시’라는 조항이 첨가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3일 학교 측에서는 총장의 요청에 의해서 단과별 대학 가운데 특히 인문대학 철학과 학과장과 교수들의 ‘전경의 교내무단진입에 대한 경찰서장 사과문 요청’에 대한 진지한 속의(熱誠)가 있었다. 이때 깨어있는 철학과 학생들은 전공교수님께 “학문의 상아탑을 지키는 것이 철학자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일이 아닙니까?”라고 간곡히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어 총장명의로 경찰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전달하였다.

경찰서장이 무반응으로 나오자, 대부분의 학생들과 일부 교수들이 15일 월요일에 시내로 진출하자는 결의를

불태웠다. 그때 총학생회에 속한 간부가 박 기자를 찾아와서 부탁하기를 시위하는 선봉에 서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박 기자는 그 간부에게 단호하게 말하기를, “화염병과 돌맹이를 던진다면 응할 수 없다. 비폭력으로 평화적인 가두시위를 한다면 앞장서겠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박 기자의 제의는 운동권에 냉랭한 예비역 북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고 많은 학생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치는 것을 염려하는 교수님이 선봉에 서다

드디어 15일 날이 밝아왔다. 첫 수업이 시작되는 오전 9시에 박 기자와 함께한 대학생들은 대학정문을 통과하여 진주 시가지로 향하고자 하였다.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우리들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을 접하게 된다.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대학총

장님과 교수님들이 이마에 하얀 천을 두르고 먼저 기다리고 있었으며 시위행진의 선두에 서겠다고 하신다. 학생들은 “전경들이 교수님이라고 봐주지 않고 최루탄을 쏠 수 있으니 제발 뒤쪽으로 가십시오.”하고 만류하였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치는 것을 염려하는 교수님은 한사코 고집을 꺾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정문에서 2백 미터쯤 전진하였을 때 전경과 대치하게 되었고 스승과 제자는 한 목소리로 “경찰서장은 사과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그날 경상대학교 후문을 돌파한 또 다른 일천여명의 경상대학교 학생들이 진주 시가지에 진출하였을 때에는 많은 시민들의 동참으로 그 행렬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한 학생들의 평화시위는 이틀간 계속되었지만 끝내 경찰서장의 사과를 없었다. 평화시위가 사흘째 되던 17일에는 시위양상

이 격렬해지고 화염병 투척을 자제해오던 운동권 학생들이 비폭력 투쟁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화염병을 손에 들기 시작하였다. 대학교 후문 쪽에는 경전선 철로변이 학교담당 역할을 하였는데, 그날 오후 2시부터 그 철로변을 사이에 두고 학생들과 전경이 대치했다. 최루탄의 무차별 난사가 가해지자 학생들의 ‘비폭력’이라는 외침이 계속되는 가운데 몇몇 학생들의 돌맹이 투척은 있었지만 화염병 투척은 없었다.

그런데 시위현장과 동떨어진 서쪽에 있는 철로변 너머 대나무 숲에서 불이 나 연기가 치솟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마산발 진주행 비둘기호 열차가 속도를 줄인 채 들어오고 있었는데, 앞에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본 기관사는 급정거를 하더니 곧 이어 후진하였다. 기차가 지나간 줄 알고 둔덕 위에 철로로 올라온 전경들은 후진하는 기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쳐 넘어지는 것이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박 기자는 기차에 치인 전경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시위하는 마음이 사그라져 버렸다. 박 기자는 시위를 그만두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몸을 돌려 교양관 안의 지혜사랑 동아리로 갔다.

비폭력 평화시위가 최후 승리하다

17일 그날 밤 경상대학교 민주광장에 모인 일천여 명의 학생들은 비폭력하고 일부 성년 학생들은 총학생회실로 올라갔다. 총학생회 간부들은 혼비백산하고 달아났다. 그 다음날 18일에 대학정문에서 이삼십 명의 운동권 학생들 위주로 시위를 시도했지만 한 명도 호응하지 아니하자 자신 해산하고 말았다. 이러한 시위군중 실종 현상으로 말미암아 18일 5공화국 청와대와 보안사령부 사이에 군 병력 투입 논의에서 제2의 광주사태가 진주에서 재현될 수 있었던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1987년 진주에서

박태선 기자